

제35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Transformative Challenge:
The Worlds of Human Mind and Planetary Engagement



2016년 9월 21일(수)~23일(금)

경희대학교



Peace BAR Festival 2016
KYUNG HEE UNIVERSITY

초 대

경희대학교가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Festival 2016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PBF 2016은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를 주제로 기념식과 학술행사를 갖습니다. 그간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폭넓게 천착해온 세계적인 과학철학자 어빈 라슬로(Ervin Laszlo) 박사를 비롯해, 로마클럽(Club of Rome), 부다페스트클럽(Club of Budapest),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회원 여러분과 국내외 석학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해, 지속가능한 문명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의식'의 출현까지도 회자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자리를 함께하셔서 뜻 깊은 미래담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경희대가 제안하고 UN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경희대 총장은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UN에 전달했고, UN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당시 UN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3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UN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 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UN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UN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 (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제안되던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Peace BAR Festival 2016
KYUNG HEE UNIVERSITY

개 관

Peace BAR Festival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
혼돈의 세계, 시민의식과 정치

축하공연

- Ennio Morricone - Gabriel's Oboe from The Mission
- Tchaikovsky - 'Waltz of the Flowers' from The Nutcracker Suite, Op.71



콜로키엄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구적 참여: 책임의 요청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취지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Transformative Challenge: The Worlds of Human Mind and Planetary Engagement

'앞으로 20년.' '앞으로 40년.' 기로에 선 인류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구다. 이 시간대는 미래학자, 문명예측 기관들의 지적처럼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지구문명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햄릿의 '생멸 고뇌'와 같이 지구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인류는 기로에 서 있다. 현대사회가 그간 누려온 성장과 팽창의 뒀안길엔 인류를 위협해온 문명사적 난제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소비와 생산 확장에 따른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심화하는 인간소외와 양극화, 일상적인 테러와 폭력, 흔들리는 기성정치. 이 '오래된 인류의 미래'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구사회는 그간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왔다. 효율과 효용, 성장에 기초한 경제 처방, 이를 강화하는 정치대응, 실용과 공리의 국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그런 '현대적 처방'을 통해 얻은 것은 '번영 속 훼손' '성장 속 소외' '인위적 위기의 불확실한 미래'다. 출구는 과연 없는 것일까? 오래된 미래의 더 나은 진로를 위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Peace BAR Festival 2016은 문명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인간 내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담론과 실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실존적 사유, 새로운 사유의 지구적 가능성에 주목하며, 현대적 삶의 다가올 미래를 천착한다. '무엇이 나인가?' '어떤 내가 타자와 함께, 사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행성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물음은 전환적 문명의 패러다임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길이라면,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희망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와 정치, 공공정책 차원의 성찰과 함께 '지구문명의 전환설계'를 위한 '실존혁명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경희대학교가 올해 'UN 세계평화의 날' 3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Peace BAR Festival 2016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책임 있게 사유하고, 시민 행동을 촉구해온 로마클럽과 부다페스트클럽,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와 함께 미래를 향한 담론의 장을 펼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와 실존적 변화를 촉구하는 학술과 실천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히 지구행성에 자리잡게 되길 기원한다.



프로그램

주 제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일 시 2016년 9월 21일(수)~23일(금)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10:30~11:30 9월 21일(수)	개회	정종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세계평화의 날 개관	이문재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장
	축하 메시지(영상)	반기문 UN 사무총장
	축사	로베르토 페체이 로마클럽 부회장
	기념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어빈 라슬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축하공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 Ennio Morricone - Gabriel's Oboe from The Mission • Tchaikovsky - 'Waltz of the Flowers' from The Nutcracker Suite, Op.71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 15:00~17:30 9월 21일(수)	취지 및 패널 소개	
	주제	혼돈의 세계, 시민의식과 정치 "Civic Minds and Politics in This Troubled World"
	패널	어빈 라슬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로베르토 페체이 로마클럽 부회장 아이토르 후르홀리노 드 수자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 회장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사회	김민웅 미래문명원 교수
콜로키엄 I, II 09:00~12:15, 13:30~16:30 9월 22일(목)	전체 주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구적 참여: 책임의 요청
	주제 I	인간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II	사회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콜로키엄 III, IV 09:00~12:00, 13:30~15:00 9월 23일(금)	주제 III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IV	전체 토론

※ 기념식과 원탁회의(9/21)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www.khu.ac.kr)를 통해 웹캐스팅할 예정

※ 전 일정 동시통역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2016년 UN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Peace BAR Festival은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로마클럽, 부다페스트클럽,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 그리고 국내외 지식인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로에 처한 인류문명의 미래를 고민하고, 지구 행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외적 조건의 한계를 극복할 실존혁명의 길을 탐색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9월 21일(수) 10시 30분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개회	정종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세계평화의 날 개관	이문재	출판문화원장
축하 메시지(영상)	반기문	UN 사무총장
축사	로베르토 페체이	로마클럽 부회장
기념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어빈 라슬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축하공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

혼돈의 세계, 시민의식과 정치

Civic Minds and Politics in This Troubled World

우리는 지금 혼돈의 세계를 목도하고 있다. 질주하는 '지구 성장경제'와 함께 전개되는 환경과 사회, 정치 혼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왜 세계는 깊은 혼돈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일까. 기존의 가치체계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 인류사회는 자본주의 성장경제의 외길로 달려왔다. 전체주의 체제 붕괴가 말해주듯, 전 세계로 확산일로에 있는 소비주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줬다. 그러나 이제 지구촌 전역으로 퍼져나간 소비주의는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문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단일 문명의 획일성이 일상을 주도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소유와 향유를 중심에 놓은 소비주의 성장경제의 신화가 다른 인간의 가치를 압도한다. 그 사이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전례 없는 기온상승이 이어진다. 자살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기성정치와 사회는 절규하는 젊은 세대와 사회적 취약층의 위기에 온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물질주의 문명이 초래한 문제를 동일한 물질주의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이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가치혁명, 실존혁명이 필요하다. 의식의 깨어남이 절실하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명의 난제에 직면해 의식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노력을 더욱 촉진하고 복돋워야 한다. 세계적인 지성 집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인류사회에 공헌해왔던 로마클럽, 부다페스트클럽, 세계예술과학 아카데미, 경희대가 자리를 함께한다. 21세기 '혼돈의 세계'를 맞아 인류가 함께 찾아나서야 할 '시민의식과 정치의 미래'를 논한다. '실존혁명에서 더 나은 미래로,' 그것이 2016년 Peace BAR Festival 원탁회의의 취지다.

일시 2016년 9월 21일(수) 15시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주제	혼돈의 세계, 시민의식과 정치	
패널	어빈 라슬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로베르토 페체이	로마클럽 부회장
	아이토르 후르홀리노 드 수자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 회장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사회	김민웅	미래문명원 교수



콜로키엄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구적 참여: 책임의 요청

New Paradigm and Planetary Engagement: A Call for Responsibility

인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함께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공멸할 것인가. 지구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문명의 전환을 촉진할 의식의 각성, 곧 의식 혁명이다. 인류의 각성과 혁명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특히 고등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구적 참여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이 콜로키엄은 인류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설계자로서 고등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9시, 13시 30분

2016년 9월 23일(금) 9시, 13시 30분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전체 주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구적 참여: 책임의 요청
주제 I	인간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II	사회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III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IV	전체 토론



콜로키엄 세션 I

인간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복합 위기는 지구적 개발 이론, 전략, 정책에서 급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인간관계는 부의 창조, 안전, 복리, 문명, 문화의 증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인간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양적 경제성장에 대한 강박과 사회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해결책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안정성, 그리고 복지를 중심에 놓는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창조성과 역동성, 그리고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인류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9시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09:00~10:35	주제	인간을 위한 '발전'이란?	
	사회	G. Jacobs	CEO of WAAS
	발표	W. Nagan 장희익	Chairman of the Board of WAAS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	E. Hoedl 이재돈	Vice President of EASA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0:55~12:15	주제	독립적 사유,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	
	사회	이택광	경희대 교수
	발표	S. Brunnhuber 최종덕	Medical Director and Chief Medical Officer of Diakonie Hospital 상지대 교수
	토론	A. Zucconi 김재희	Secretary General of WUC 서울예대 초빙교수



콜로키엄 세션 II

사회적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는 넓고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조직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이다. 조직은 사회 발전의 핵심 원리이자 중심 시대이다. 주류 사회이론은 조직과 사회를 계량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주의적 정량주의로는 통합적 인식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를 제대로 파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문명사적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활기차고 유기적인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재발견하는 데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13시 30분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13:30~14:50	주제	인간을 위한 경제와 시장	
	사회	R. Peccei	Vice President of Club of Rome
	발표	N. Saavedra-Rivano 이병남	Prof. Emeritus of Univ. of Tsukuba 전 LG 인화원장
	토론	E. Hoedl 박용승	Vice President of EASA 경희대 교수
15:10~16:30	주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융합학문의 길	
	사회	송재룡	경희대 교수
	발표	G. Jacobs 정지훈	CEO of WAAS 경희사이버대 교수
	토론	W. Nagan 송종국	Chairman of the Board of WAA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콜로키엄 세션 III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 진화를 증진하기 위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강력한 도구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수백 년 동안 누적된 인류의 경험을 미래 세대에게 집약적 형식으로 전달해준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는 과거 인류가 획득한 모든 지식 위에서 자신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전통적 방식의 지식 전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문명의 진보를 추동해온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 교육과 개인 사이의 간극을 메꿔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일시 2016년 9월 23일(금) 9시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09:00~10:20	주제	개별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
	사회	H. G. de Souza President of WAAS
	발표	A. Zucconi Secretary General of WUC 유정완 경희대 교수
	토론	S. Brunnhuber Medical Director and Chief Medical Officer of Diakonie Hospital 이윤미 홍익대 교수
10:40~12:00	주제	고등교육의 미래: 지구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사회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발표	G. Jacobs Chairman of the Board and CEO of WUC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
	토론	R. Peccei Vice President of Club of Rome 이동욱 (사)인간과학연구소 이사장



콜로키엄 세션 IV

전체 토론

콜로키엄에 참석한 국내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흘간 나눈 의견을 종합, 수렴한다. 전체 마무리 토론에서는 의식혁명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이다. 미래의 지구문명이 요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적 입장을 나누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와 방법론, 행동 지침이 제안될 것이다. 또한 이번 콜로키엄을 통해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시 2016년 9월 23일(금) 13시 30분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13:30~15:00	주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구적 참여: 책임의 요청
	공동 사회	H. G. de Souza President of WAAS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발표	참여자 전원
	토론	참여자 전원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주간 개회식

세계평화교육에 기반을 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되짚어보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실천과 활동을 다짐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19일(월) 11:50~13:0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B102호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의 날 영화상영

평화와 관련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0일(화) 12:00~15:00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2016년 9월 23일(금) 12:00~15:00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전시회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이 걸어온 발자취와 활동기록을 전시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19일(월)~23일(금)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로비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유네스코 부스

유네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대학생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1일(수) 11:00~17:0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글쓰기 대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PBF 2016 주제', '평화' 관련 글쓰기 행사를 진행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2일(목) 14:00~18:00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51호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 Peace Road 탐방

캠퍼스를 돌며 경희의 평화 역사와 상징물의 탄생 배경, 의미 등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0일(화) 10:30, 13:30 2016년 9월 22일(목) 10:30, 13:30 경희대학교 캠퍼스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후마니타스칼리지, GSC(지구사회봉사단), 경희기록관

UNAI ASPIRE 경희평화포럼

PBF 2016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국내 대학생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빈곤 해결을 위한 시민(대학)사회의 역할과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4일(토) 09:00~18:00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401호	주제	빈곤 해결을 위한 시민(대학)사회의 역할과 실천방안
		대상	UNAI ASPIRE 회원 학생 및 일반 학생
		주관	GSC(지구사회봉사단),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세계평화의 날 기념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토론회

PBF 2016 주제와 '대학생이 바라는 미래 대학'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엄 발표 자료 및 추천도서를 읽고 세계 선진혁신대학의 사례도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3일(금) 13:00~15:00 서울캠퍼스 청운관 409호	주제	대학생이 바라는 세계대학
		대상	경희대학교 학생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 <평화 선언문> 채택 및 세계 이해하기

지구적 아젠다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 메시지를 채택하고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3일(금) 15:00~18:0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유학생 학생회, 후마니타스칼리지, GSC(지구사회봉사단)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평화온도계

PBF 2016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평화 주간 동안 평화 기금을 모금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19일(월)~23일(금)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로비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후마니타스칼리지, GSC(지구사회봉사단)

제35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전시회

PBF 2016을 맞아 경희 평화 운동사를 회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1일(수)~23일(금) 본관 진입로(중앙도서관과 온실 사이)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경희기록관

PBF 2016 공모전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그 가치의 길을 모색한다. PBF 2016 주제와 관련된 선정도서의 감상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5일(월)~11월 30일(수)	주제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대외협력처 홍보실

세계평화의날 기념 강연

제35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BF 2016의 일환으로, 세계석학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 있게 사유하고 시민운동을 촉구해온 부다페스트클럽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어빈 라슬로 박사를 초청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실존적 변화를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갖고자 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3일(금) 19:00~21:00 서울캠퍼스 크라운관	주제	우주, 지구 우주선의 탑승자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철학을 위하여
		초청자	어빈 라슬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재)플라톤아카데미



참여기관 소개

부다페스트클럽 Club of Budapest



1993년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자 과학철학자인 어빈 라슬로 박사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로마클럽의 자매기관으로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인사 등이 인간의식의 지구행성적 의미를 성찰하고 예술, 문학, 문화 등 세계적인 문화적 의식의 계발을 통해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현존하는 성장의 한계를 의식혁명으로 넘어서는 방도를 고민해왔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달라이 라마, 투투 주교, 토머스 베리, 파울로 코엘료, 지휘자 주빈 메타 등이 명예회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빈 라슬로 Ervin Laszlo

부다페스트클럽의 회장이자 로마클럽의 창립회원이다. Laszlo Institute of New Paradigm Research의 설립자이며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국제연합 훈련조사연구소(UNITAR)의 특별 연구원으로 Goals for Mankind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또한 1977년부터 1980년까지 UNITAR의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NIEO) 프로그램의 의장을 지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참여기관 소개

로마클럽 Club of Rome



1968년에 출범한 로마클럽은 저명 학자와 기업가, 유력 정치인 등 지도자들이 참여해 '성찰 없는 기술문명'의 한계를 경고했다. 1972년 『성장의 한계』 출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기रो에 선 인류』, 『사유화의 한계』,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등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회장, 페르난도 카르도스 전 브라질 대통령 등이 명예회원,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베르토 페체이 Roberto Peccei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물리학 교수이며 연구 부총장을 지냈다. 현재 로마클럽의 부회장이자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의 회원이고 함부르크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와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 für Physik und Astrophysik)의 연구원을 지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물리학 학사, 뉴욕대학교(NYU)에서 물리학 석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1960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등을 비롯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구문명의 미래, 고등교육의 진전된 역할을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인문,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비롯해 지구차원에서 경제를 재구성하는 문제들을 다루며 '세계대학(World University)'이라는 이상을 추구한다. 인류의 지식 성장 증진,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혁명을 위해 미래학, 리더십 등 대학원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토르 후르홀리노 드 수자 Heitor Gurgulino de Souza

유엔대학의 총장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 특별 자문을 지냈다. 또한 University of the Brazilian Legislature의 부총장과 세계대학총장회의(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의 부회장, Federal University of São Carlos의 초대 총장, 브라질 교육 연방회의 회원 등 다양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브라질, 멕시코,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Peace BAR Festival 연혁: 한반도에서 몸, 문명, 우주까지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다.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시아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1991~2000	1991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2016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114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031-201-3114

광릉캠퍼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tel 031-570-7012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8-2233

후원 **M** M 엠디엠 **KAIT** 한국자산신탁